

2018년 5월 4일

csf@kiep.go.kr

인도-중국 비공식정상회담 개최 배경 및 전망



- 모디 인도총리와 시진핑 중국주석은 4월 27~28일 양일간 비공식정상회담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함.
 - 양국 정상은 이례적으로 사전 의제 없이 통역만 동반한 채 7차례에 걸쳐 9시간 동안 비공식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비우호적이었던 양국관계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함.
 - 인도 정부는 보도 자료에서 비공식회담이 양국 간 전략적 의사소통의 수준을 높였다고 했으며, 중국은 중-인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언급
 - 양국 정상은 양국의 국경 문제, 교역 및 투자,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논의하고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등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함.
 - 양국 정상은 구체적인 의제나 목표 없이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양국 관계 재설정과 신뢰 회복에 주안점을 둬.
 - 특히 인도-중국 국경 문제에 있어 평화 유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군대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해 양국 군의 신뢰와 이해 구축 등 국경지역 긴장감 해소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음.
 - 인도-중국 간 비공식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군사령부가 핫라인 설치에 동의했으며, 실제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 LAC) 순찰을 조정하기로 함.¹

1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은 확정되지 않은 채 통제선(LAC)으로 영토를 구분하고 있는 민감한 상태

표 1. 인도-중국 비공식정상회담 주요내용

구분	주요 논의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전반적 논의 • 양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우선순위 공유
분야별 주요내용	양자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중국 국경 문제: 평화 유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장치 강화, 군대에 전략적 지침 제공해 양국 군의 신뢰와 이해 구축 • 교역 및 투자: 무역불균형 문제, 무역 및 투자 확대 • 문화 및 인적 교류: 양국 26억 인구의 문화 및 인적 교류로 상호간의 이해 확대
	국제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주의 반대: 개방적, 다극적, 다원주의, 참여적 세계경제질서 구축 •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식량 안보 • 개도국을 대표하는 역할 확대

자료 : 인도 및 중국 외교부 언론자료

□ 이번 비공식정상회담은 비우호적인 양국관계의 개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분석됨.

- 양국은 1949년 이후 지속된 국경분쟁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용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나 국경문제를 비롯한 정치·안보 측면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 협력확대에 한계가 존재
 - 특히 양국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경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할 필요²
-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가운데 중국의 대인도 협력강화 필요성과 2019년 총선을 앞둔 모디 총리의 전략적 대중국 협력의지가 확대됨.

□ 이번 정상회담은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 인도외무장관인 Shivshankar Menon은 기대를 낮추고 비공식회담을 개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블룸버그, CNN 등 외신들 또한 이번 비공식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함.
- 양국은 정상회담을 보다 자주 개최하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양국 정상은 6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간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
 - 모디 총리는 비공식정상회담이 양국 간 전통이 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며, 2019년 시진핑 주석을 초청
 - 향후에도 비공식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무역불균형과 같은 경제문제와 중국의 일대일로전략(BRI) 지지, 인도의 원자력공급자그룹(NSG)가입 등 정치·외교 문제에 대한 이견을 점차 좁혀갈 가능성이 있음.

2 2017년 6-8월 양국 군대는 부탄 국경 부근(도크람)에서 1962년 중-인 전쟁 이후 최장 (73일) 및 최악 상태로 대치한 바 있음.

- * 2017년 기준 양국 간 총 교역액은 840억 달러이며,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액은 595억 달러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 문제가 존재
- * 인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³
- * 인도의 원자력공급자그룹(NSG) 가입이 중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음.⁴ CSF

(작성자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이정미 전문연구원)

3 2018년 4월 중순 개최된 제5차 경제전략대화(SED)에서 인도의 국가싱크탱크 NITI Aayog의 부위원장인 라지브쿠마르는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장점만 부각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국가 주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 NSG란 원자력 관련 물품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설립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로 인도는 1970년대 파키스탄과의 핵무기 발전경쟁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으며, 2008년 제재에서 풀려난 이후 NSG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중임. 인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NSG에만 가입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